

출장 결과 보고서

I

출장 개요

- 일 시 : 2018. 11. 4.(일) ~ 11. 12.(금)
- 연수국 : 미국
- 출장자 : 10명(위원 7, 전문위원 1, 공무원 2)
- 목 적
 - 세계적인 선진도시의 도시계획 및 도시경관, 공원관리와 주차정책 등 도시건설 분야 우수 제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접목하여 지역 발전 및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 내 용
 - 공원 관리방안 및 체험프로그램 등 비교 검토를 통한 정책 제안
 - 에코팍호수공원, 팔래스오브파인아트 등
 - 도시경관(간판디자인 등) 정책 우수사례 접목
 - 샌프란시스코 유니온스퀘어거리, 피셔만와프 상업건물 등
 - 공유 자전거 프로그램 비교 검토를 통한 정책 발굴
 - LA시청, 유니언역, 차이나타운 공유스테이션
 - 국가정원전망대 관련 정책제안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 그린피스공원 전망대, 샌프란시스코 트윈픽스 전망대
 - 4차 산업분야 우수사례 비교 견학
 - 네바다주 남동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컨벤션산업 분야)
 - 프레즈노 농장(농업분야)

○ 출장자 및 역할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역 할
계		10명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정옥	남	연수 총괄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여	정책자료·제안사항 발굴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김병권	남	정책자료·제안사항 발굴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부의장)	강형구	남	정책자료·제안사항 발굴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최병배	남	정책자료·제안사항 발굴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오광묵	남	정책자료·제안사항 발굴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김영진	남	정책자료·제안사항 발굴
의회사무국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좌선	남	계획수립 및 정책자문
"	홍보팀장	정은경	여	정책자료·제안사항 발굴
"	주무관	최국일	남	정책자료·제안사항 발굴

II

출장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요 일정
1일 차 11. 4. (일)	대한민국 (순천, 인천)	미국 (로스앤젤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출발 ◦ LA 국제공항 도착 ◦ LA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견학 ◦ 도시공원 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팍호수공원 견학
2일 차 11. 5. (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자전거 공유 스테이션 담당자 면담 및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나타운, 유니언역 ◦ 그린피스전망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만전망대 정책 제언을 위한 비교견학
3일 차 11. 6. (화)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국 (캐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 견학 ◦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관리방안 제언 마련
4일 차 11. 7. (수)	미국 (캐넌)	미국 (라플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앤탈롭 캐년 견학 ◦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견학 ◦ 라플린 이동
5일 차 11. 8. (목)	미국 (라플린)	미국 (프레즈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산업 우수사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바다주 남동부 컨벤션센터 견학 - 프레즈노 농장(키위, 오렌지) 견학
6일 차 11. 9. (금)	미국 (프레즈노)	미국 (샌프란시스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세미티 국립공원 견학 ◦ 금문교 견학 ◦ 샌프란시스코 시청 방문 ◦ 도시경관(간판디자인) 우수사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샌프란시스코 유니온스퀘어거리 간판 - 피셔만 와프 인근 재개발 상업건물 간판
7일 차 11. 10. (토)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관리 담당자 면담 및 우수사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샌프란시스코 팔레스 오브 파인아트 ◦ 샌프란시스코 트윈픽스 전망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만전망대 정책 제언을 위한 비교견학 ◦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출발
8일 차 11. 11. (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내 숙박
9일 차 11. 12. (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도착

■ 로스앤젤레스



위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남부

경위도 서경 118°15', 북위 34°03'

면적 1,290.6 km²

설립 1781년 9월 4일

시간대 PST(UTC-08)

인구 392만명

거리 서울까지 약 10시간 50분

시차 -17시간

뉴욕 시에 이어 미국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시이며 대도시권이다. 아열대기후, 야자나무, 수영장, 텔레비전 방송국, 항공우주산업체 등으로 대표되는 곳이다.

서쪽으로는 태평양에 면하고 동쪽으로는 샌게이브리얼 산맥과 접하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교하게 건설된 고속도로망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시는 로스앤젤레스 군의 군청소재지인데, 군은 베벌리힐스·패서디나·롱비치 등 80개 이상의 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샌타캐탈리나와 샌클러멘티 2개 섬이 해협에 떠 있다. 올드볼디로 알려진 샌안토니오 산이 있는데, 정상 높이는 3,062m이다. 군에는 2,330km²의 사막과 120km에 걸쳐 뻗어 있는 해안이 있다. 도시는 대도시권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

시장과 15명의 시 의회 의원들은 4년 임기이며 선거에 의해 뽑힌다. 그밖에 시 법무관, 회계감사관, 7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선거에 의해 뽑힌다.

5명으로 구성된 군정(郡政) 집행위원회가 4년 임기로 군을 관할한다. 군정집행관들은 관할 구역상 시와 군에 2중으로 속해 있는 기관들을 관리한다.

약 20개의 전문대학들과 5개의 주립대학들이 있다. 가장 오래된 2개의 고등교육기관은 1880년에 설립된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와 1887년 설립된 옥시덴탈대학이다.

로스앤젤레스의 9월은 평균 최저기온이 17.3℃, 평균 최고기온이 24.8℃로 우리나라의 9월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인다. 평균 일교차는 7.5℃이며, 평균 강수량은 7.9mm, 평균 강수일수는 1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샌프란시스코



위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면적 600.6km²
 설립 1847년 1월 30일
 시간대 PST(UTC-08)
 인구 85만명
 거리 서울까지 약 10시간 50분
 시차 -16시간

샌프란시스코는 빼어난 경치를 사랑하는 항구와 경사진 도로로 유명하다. 이곳은 음악, 예술, 좋은 음식과 같은 문화적 쾌락을 모두 향유하는 세련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지만, 미국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알코올 소비량, 미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자살률을 기록한 도시라는 이면도 있다.

캘리포니아 반도 북쪽 끝에 위치한 정4각형 모양의 도시로 언덕이 많다. 가장 높은 언덕은 높이 270m 이상의 쌍둥이봉인 데이비드슨 산과 수트로 산이다. 개척 당시의 도시계획 설계자들이 바둑판 무늬를 지나치게 선호한 나머지 언덕이 많은 도심의 도로들은 깎아지른 듯 경사지게 1자로 뻗어 있고, 케이블카가 장관을 이룬다.

캘리포니아 주는 다른 시와는 달리 시·군·정부가 통합되어 있다. 1932년 자유토지보유 특권에 따라 시장에게 강력한 행정권이 부여되었고 이것은 다시 시장 자신이 임명한 총행정관과 감독관에게 상당부분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1776년 6월 29일 설립되었다.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로 크게 성장했으며, 미국 서해안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다. 1856년에는 도시와 군이 통합되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과 화재로 도시의 4분의 3이 파괴되었지만, 빠르게 재건되었고 9년 뒤 파나마-태평양세계박람회를 개최했다.

공공시설로 주요수원지는 하이시에라에 있는 헤치헤치 저수지이다. 이것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계곡에 댐을 만들고 코스트 산맥을 통과하는 길이 4km의 터널을 만들어 완성한 것이다. 1902년 모켈러미 강 발전소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수력전기를 보내는 최초의 고압선이 가설되었다.

교육기관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만 건너편 버클리 시에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가 있고, 반도 아래쪽의 팰러앨토 시에는 스탠퍼드대학교가 있으며 시내에는 샌프란시스코대학교(예수회)와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가 있다.

■ 라스베이거스



위치 미국 네바다 주 남동부
 면적 352km²
 시간대 PST(UTC-08)
 인구 62만명
 거리 서울까지 약 10시간 50분
 시차 -16시간

미국 네바다 주 남동부 사막에 위치한 라스베이거스는 미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꼽히고 있다. 19세기 말까지는 소규모 광업이나 가내 수공업 정도를 하는 작은 마을이었으나, 1905년에 캘리포니아와 솔트레이크시티를 잇는 철도가 완성되면서 현대적인 도시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1936년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후버댐이 건설되고 네바다 주의 자본이 몰리면서 최고의 관광 도시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현재의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와 쇼걸들, 엘비스를 앞세워 화려한 밤의 도시로만 연상되던 시대에서 벗어나,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모든 필요충분조건들을 갖추고 전 세계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유타 주에서 온 모르몬교도들이 처음으로 이곳에 정착했다(1885). 옛 스페인 산길을 따라 있는 메마른 계곡 속의 깊은 샘에서 물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라스베이거스('초원'이라는 뜻)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후는 전형적인 사막 기후로 일 년 내내 건조하다. 여름철 낮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한낮에 밖에서 20분 이상 걷는다면 탈수 증상이 생길 정도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하다. 겨울철에는 보통 섭씨 10~15도이지만 새벽에는 섭씨 3~5도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치안은 관광의 도시인만큼 비교적 안전하지만, 종종 늦은 밤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나 취객들과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절대 낯선 사람들과 불미스러운 일에 연이지 않도록 한다.

지리적으로 라스베이거스는 미국 남서부(사우스웨스트)에 속하며 네바다주의 남쪽 끝, 모하비 사막지대에 있다. 1만피트(3000m) 이상의 높은 산들로 둘러 싸여 있는 지대여서 습기를 물고 올 수 있는 구름이 차단됨으로 강우량이 극히 낮다. 도시지역의 해발 고도는 2,030 ft (620m)이다.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는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1936년에 완공된 후버댐(Hoover Dam)이 있고 댐으로 인해 만들어진 미드(Mead)호수가 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필요로하는 전력과 물을 이곳에서 공급받고 있다.

■ 프레즈노



위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중부
경위도 서경 119°46', 북위 36°45'
면적 290.88 km²
설립 1872년
시간대 UTC-8, Summer: UTC-7
인구 52만명
거리 서울까지 약 11시간
시차 -16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남부에 있는 도시. 지명은 에스파냐어로 '물푸레나무'라는 뜻이다. 1872년 남부 태평양 철도 개통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비옥한 토양, 온난한 기후, 관개 설비가 갖추어져 미국에서 가장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 주변에서 산출되는 과일, 밀, 낙농제품의 대집산지이며, 건포도의 생산량은 세계 최대이다. 요세미티와 세쿼이아 국립공원 등 문화 시설이 많은 관광 중심지이기도 하다.

주변에서 산출되는 과일·밀·낙농제품 등의 대집산지이며 건포도의 생산은 세계 최대이다. 제재·면실유(油)·올리브유(油)·주물(鑄物)·벽돌·도기도 생산된다. 프레즈노주립대학교·캘리포니아대학교 등에 실험 농장이 있다.

■ 라플린



위치 미국 네바다주
경위도 북위35°8'30" 서경114°37'
면적 231.5 km²
시간대 PST (UTC-8)/PDT (UTC-7)
인구 52만명
거리 서울까지 약 11시간
시차 -16시간

네바다주 최남단에 위치하여 애리조나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콜로라도강(Colorado River)이 이 도시를 지난다. 도시명은 1964년에 이곳의 토지를 매입하여 카지노 리조트를 조성한 돈 라플린(Don Laughlin)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라플린에는 호텔, 카지노, 박물관, 수상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휴양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마다 약 3백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찾는다. 전형적인 사막 기후 지역인 이 도시의 여름 평균 기온은 약 43°C 로 매우 덥고 건조하며 겨울 평균 기온은 18-24 °C 정도로 온난하다.

[LA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 방문지 : LA시청, 유니언역, 차이나타운 공유스테이션
- 65개소 자전거정류장 / 자전거 1,090대
- LA시는 다운타운 곳곳에 65개의 ‘자전거 정류장’을 마련하고 여기에 1,090대 자전거를 비치해, 다운타운에서 단거리 이동을 원하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스마트폰에서 메트로 바이크 세어 앱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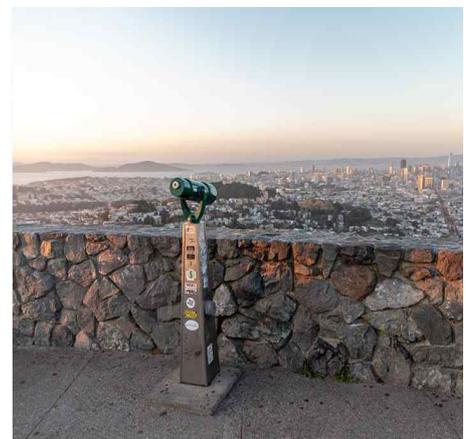
[도시경관(간판디자인) 정책]

- 방문지 : 유니온스퀘어거리, 피셔만와프 상업건물
- 샌프란시스코 유니온스퀘어 거리 등 미국의 전통 거리의 경우 건물 및 주변의 경치에 잘 어울리는 수공예적인 아름다운 간판이 거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의 도시경관 제도 및 사례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도시경관 디자인 전략을 고민.



[국가정원전망대 조성 관련 정책 제안]

- 방문지 : 그린피스공원(그린피스천문대·전망대), 샌프란시스코 트윈픽스 전망대
- 그린피스 전망대는 할리우드 산 해발 345.64m에 위치해 있어 로스앤젤레스 시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오르기가 쉬움.
- 샌프란시스코에는 270m높이의 두 개의 산봉우리로 이루어진 쌍둥이산이 있는데 이를 트윈픽스라 부름. 트윈픽스에서는 인근 전경을 306도 전방위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 도심지역에서金門교 및 인근 태평양까지 한 눈에 볼 수 있고, 야경 관람에 인기가 많은 명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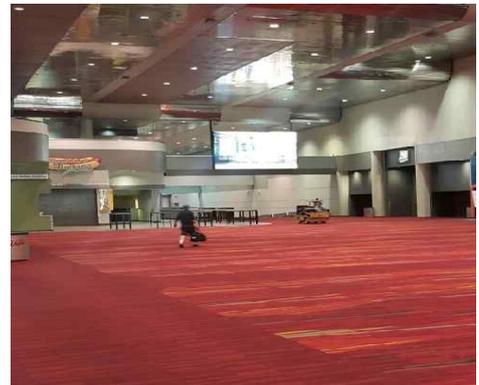
[도시(호수)공원 관리방안]

- 방문지 : 에코팍호수공원, 샌프란시스코팔래스오브파인아트
- 에코팍호수공원
 - 1868년 잉글리시 파크 테마로 건설
 - 2013년 6월 총공사비 4,500만 달러를 투입,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재개장
 - 독성물질이 함유될 정도로 최악의 수질을 재정비를 통해 미국의 대표적인 호수공원으로 재탄생함.
- 팔래스오브파인아트
 - 잔잔한 호수와 어우러진 돔형식의 건축물
 - 안에는 연극 등을 공연하는 극장과 세계 최대규모의 체험 박물관이 있음.



[4차산업 우수사례 (컨벤션산업 분야)]

- 방문지 : 네바다주 남동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 1959년 문을 연 이후로 수차례에 걸친 확장(보수)공사로 지금은 미국내에서 단층 컨벤션 센터로는 가장 큰 규모임.
-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대형 컨벤션(컴덱스, 매직, NBA 등)은 물론이고, 초대형 이벤트 행사까지 이곳에서 열림.
- 총 9만평 크기의 면적에, 5만 6,000평 크기의 전시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미팅룸은 14개, 면적은 6천 900평. 주차 가능대수는 5천 500대 임.



[4차산업 우수사례 (농업 분야)]

- 방문지 : 프레즈노 농장(키위, 오렌지 등)
- 인구 45만명, 농업기반 도시인 프레즈노. 전세계 오렌지 생산의 30%를 이곳에서 생산함.
- 프레즈노는 농업인력 부족과 최저임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농업용 로봇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음.
- 농장내에는 그곳에서 직접 생산되는 농산물로 재미있는 모양들의 장식품을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이 체험을 통해 수확한 농산품을 그곳에서 바로 판매 하는 상당한 규모의 매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음.



V

방문지별 주요 내용

■ LA 시청, 유니온역 주변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벤치마킹>

• LA 다운타운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bike share)은 2016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 도입한지 2년이 조금 넘는 지금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LA 시에서는 처음으로 다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은 유니언 스테이션과 LA 시청, LA 컨벤션 센터, 그랜드 센트럴 마켓, 리틀 도쿄 등 총 65개 지역의 버스 정류장과 메트로 스테이션 인근에서 700여대의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음.

• LA의 자전거 프로그램은 주 7일 24시간 언제나 이용이 가능하며 시민들이 스마트폰에서 메트로 바이크 셰어 앱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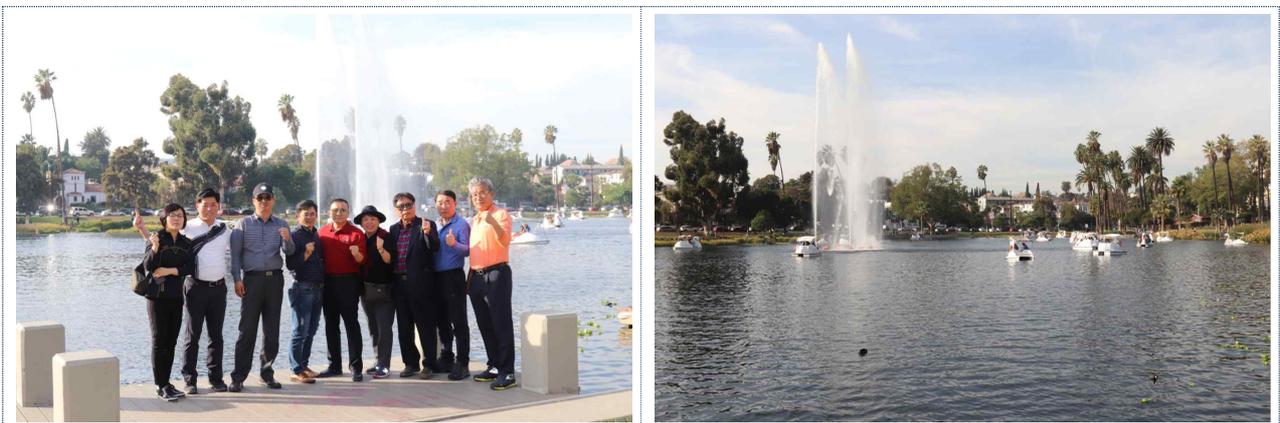
■ 에코팍 호수공원 <호수공원 관리 방안 벤치마킹>

- ‘도심 속 정글’이라는 별명이 있는 에코팍 호수공원은 LA 시민들의 쉼터라고 불릴만큼 자연 친화적인 호수공원 임. 평소 오리보트를 타거나 잔디밭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곳임.

- 에코팍은 호수공원은 당초 식용으로 쓸 저수지로 개발됐지만, 수질이 점점 악화되어 단순한 빗물보관 또는 야생동물이나 수상식물들의 터전으로 바뀌어갔음.

- 2006년 수질조사 결과 독성물질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2011년 LA시가 약 2100만 갤런의 물을 퍼내어 바닥 재정비를 시작함. 당시 물을 퍼내자 호수 바닥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있었음.

- 총 공사비 4500만 달러를 투입해 2013년 6월에 재개장한 에코팍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함. 4에이커에 달하는 습지가 조성됐고, 산책로도 새롭게 정비됨. 보트 하우스가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아주 좋고, 도심 숲 정글이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현재는 온갖 수상식물과 함께 오리, 거위, 자라 등 다채로운 종들이 서식하며 자연 친화적인 호수로 거듭났음.



■ 그린피스 전망대 <순천만전망대 정책제언을 위한 비교견학>

● LA 최고의 문화명소로 꼽히고 있는 그린피스 전망대는 그린피스 파크 내 위치해 있음. 총 면적은 17km²로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 째로 큰 공원이며, 미국 대도시에 위치한 도심공원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임.

● 1896년에 지역 유지인 그린피스 대령이 천문대와 전시장 등을 지을 부지를 로스앤젤레스 시에 기부하여 이 부지에 그린피스 공원이 세워졌음.

● 할리우드 산 해발 345.64m에 위치해 있어 로스앤젤레스 시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오르기가 쉬우며, 특히 전망대에서 시내의 야경관람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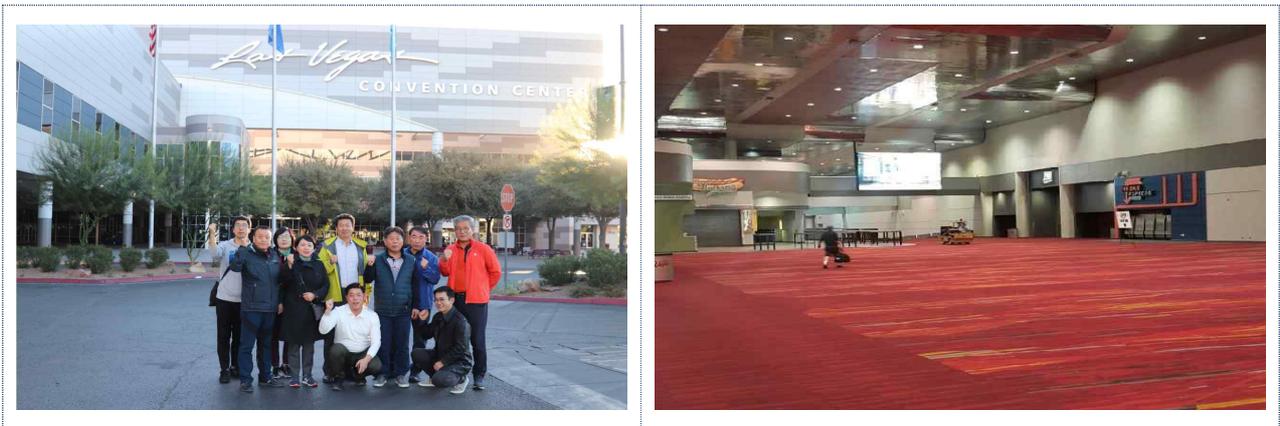
● 그린피스 공원은 평지로 잔디광장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주변의 수목도 잘 정비되어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을 주었고, 방지턱 등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 보행약자들도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 동선을 만들었음.



* 그린피스 전망대에서 바라다본 모습. 멀리 할리우드 사인과 LA 도심이 내려다 보인다.

■ 네바다주 남동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4차산업 컨벤션 분야 벤치마킹>

-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는 1959년 문을 처음 연 이후로 수 차례에 걸친 보수 및 확장 공사 후 2002년 1월에 최종 공사가 마무리 됨.
- 대형 컨벤션은 물론이고 초 대형 이벤트 행사까지 다양하게 열리고 있음. 세계적으로 일년 동안 열린 초대형 행사 200개의 대형 컨벤션 행사 중에 이곳에서만 34개의 행사가 개최되었다고 함.
- 총 9만평 크기의 면적에 전시장소는 5만 6천평 정도의 크기이며, 14개의 회의실 면적은 6천 9백평 규모. 전시장에는 기둥도 많지 않고 넓어서 공연장 등 이벤트 공간으로 손색이 없음.
- 전시장 복도에 라스베이거스 공항의 비행기 출발시간을 안내해 주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고객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음.



■ LA 시청 <신청사 건립관련 벤치마킹>

- 로스앤젤레스는 미 서부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임. 시청사는 다운타운의 중심지인 시빅 센터(Civic Center)에 자리잡고 있음. 시빅 센터는 시청과 군청, 재무부 법무부 등 연방 행정기관 건물들이 집중된 행정타운임.

- 건축가 존 파킨슨(John Parkinson)과 존 오스틴(John Austin), 앨버트 마틴 시니어(Albert Martin, Sr.)가 공동 설계하였고, 1928년에 완공됨. 높이는 138m로 총 3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음.

- LA 시청 앞 광장은 관공서 광장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 공원이었음. 잘 정돈된 잔디광장과 광장 가장자리로는 야자수 등 유럽풍의 조경수가 쪽 늘어서 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 특히 시청 건물 27층에는 LA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무료로 개방 되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 브라이스 캐년은 유타주 남부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 연 중 내내 개방되고 있음. 거대한 계단식 원형 분지로 일출과 일몰 때면 후드라 불리는 핑크색 바위 봉우리 수백만 개가 빛을 발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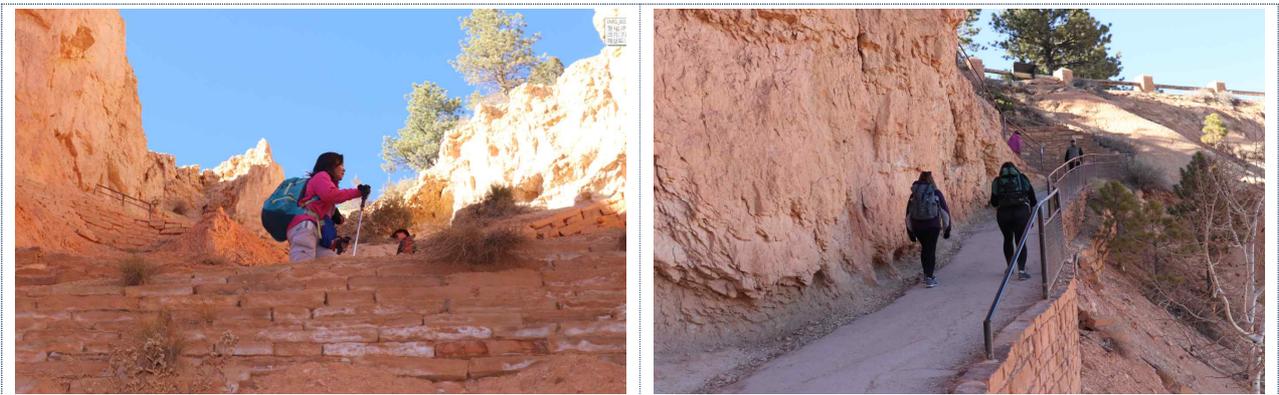
- 약1천 3백만년전에 이르러 물과 바람의 작용으로 침식을 거듭하면서 모두 물의 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함.

- 공원의 면적은 145km²이고 남북으로 33km 이어져 있음. 공원 내에 13개의 전망대가 있으며 잘 포장된 도로가 공원 전체에 잘 연결되어 있음.

- 림 트레일, 퀸즈가든 트레일, 홀스트레일 등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있으며, 관광객들의 시간과 컨디션에 맞는 고스를 선택해서 협곡 사이를 트레킹 할 수 있는 매력이 있음.

- 자이언 캐년은 브라이스 캐년과 함께 유타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3대 캐년 중에서 브라이스 캐년이 여성스러움의 매력이 있다면 자이언 캐년은 그와 반대로 남성스러움을 자랑하는 곳임.

- 자이언캐년은 콜로라도 고원의 서쪽끝에 위치하며 대부분지 사막과 모하비 사막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독특하고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음. 총 17개의 트레킹 코스가 있으며, 그 중 난이도별로 쉬운 코스가 9 개소, 중간이 4개소, 힘든 코스가 4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음.



■ 앤텔롭 캐년

- 앤텔롭 캐년은 나바호 인디언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하루에 투 어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입장이 허가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아 여행, 사진 등 일부 매니아 층에서만 잘 알려진 곳임.

- 이 곳에서는 관광객이 입장하는 순으로 조를 나눠 입장하며, 입장객 관리 및 안내는 모두 나바호 인디언들이 맡아서 하고 있음. 일일 평균 3 천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었음.

●가파른 철재계단을 통해 동굴처럼 이루어진 협곡 사이를 들어가면 붉은 사암과 태양 빛이 만나 장관을 이루어 내는 모습이 장관이었음. 하지만 좁은 협곡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오르내리는 계단도 가파르고 별도의 안전장치도 부족해 안전상에 위험이 많아 보였음.



■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은 미국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미국 대륙의 광활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세계적인 관광지의 한 곳임. 4억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콜로라도 강의 급류가 만들어낸 대협곡으로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임.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중인 하나인 이곳은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곳임.

●폭은 0.2~29km, 길이는 약 443km이며 애리조나 주 북쪽 경계선 근처에 있는 파리아 강 어귀에서 시작하여 네바다 주 경계선 근처에 있는 그랜드위시 절벽까지 구불구불 이어져 있음.

●절벽을 따라 설치된 전망대를 통해 협곡을 조망할 수 있으며, 직접 걸어서 협곡으로 내려가는 트래킹 코스 뿐만 아니라, 경비행기를 타고 협곡 전체를 관망하는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음.

- 공원내에 코스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군데 군데 있긴 하였으나, 방향만 표시되어 있을 뿐 거리는 표시되지 않아 아쉬운 면이 있었음. 우리시 관광지 이정표도 관광객 눈높이에서 다 시 한번 세심하게 재점검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프레즈노 농장 <4차산업 농업 분야 벤치마킹>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남부에 있는 인구 45만명의 농업기반 도시인 프레즈노는 전세계 오렌지 생산량의 30%를 점하고 있다.
- 프레즈노는 농업인력 부족과 최저임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농업용 로봇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음.
- 광활한 농장에는 블루베리, 키위, 오렌지 등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었고, 농장내에는 그곳에서 직접 생산되는 농산물로 재미있는 모양들의 장식품을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관광객들이 체험을 통해 수확한 농산품을 그곳에서 바로 판매 하는 상당한 규모의 매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 유니언스퀘어 거리 <공공디자인(간판디자인) 벤치마킹>

- 공공디자인이란 건물의 간판, 공공장소의 벤치, 신호등, 정류장과 같은 공공의 시설물들을 국가 지방 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설치, 관리하는 공적 영역의 디자인을 말함.

-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민간과 기업, 관공서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구성하고 있음.

- 미국의 전통 거리의 경우 건물과 어울리는 수공예적인 아름다운 간판이 거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도시의 디자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업의 CI정책을 수정시켜 적용하도록 하는 강제적 규제 장치까지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시의 경우 네모반듯한 획일적인 건물의 간판이 아직까지 대부분임. 관광지별 혹은 각 마을마다 지역별로 특색 있게 세분화된 간판 디자인 전략이 필요함. 경기도처럼 우수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 샌프란시스코 팔래스오브파인아트 <도시공원 관리 벤치마킹>

- 팔래스오브파인아트 공원은 파나마 운하의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1915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파나마-태평양 국제박람회 미술품 전시를 위해 지어졌음. 당시 열 곳의 전시관이 있었는데 현재 이 팔래스오브 파인아트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임.

- 잔잔한 호수와 어우러진 돛형식의 건축물이 있으며, 건물 안에는 연극 등을 공연하는 극장과 세계 최대 규모의 체험 박물관이 있음.

- 호수에는 백조, 청둥오리를 비롯해 거북이 등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음.

- 작은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책로를 둘러보는데 여유 있게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관광객에게 유명한 곳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이 웨딩, 데이트나 산책을 위해서 자주 들르는 곳임.



1. 공유 자전거 디자인 및 시스템 개선

- 정원도시인 우리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디자인 / 튼튼하고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소재로 제작
- LA의 매트로바이크 세어 앱처럼 스마트 폰 앱 서비스 공유 필요
- LA시는 다운타운 곳곳에 65개의 '자전거 정류장'을 마련하고 여기에 천여대의 자전거를 비치해, 다운타운에서 단거리 이동을 원하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시도 공유자전거인 온누리자전거를 42개 대여소 289대를 운영 중에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하면 디자인 측면이나 견고함 등 안전성에서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현실임.
- 향후 공유 자전거 추가 구입 시 젊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세련되고 정원도시인 우리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함께, 튼튼하고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소재의 자전거 구입 필요.
- 또한 현재 우리시는 자전거를 대여할 때 현장이나 PC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대여가 가능한데, 스마트 폰 앱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여와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LA 공유 자전거



LA 매트로 바이크 세어 앱

2. 우리시만의 뚜렷한 테마에 특색있는 공공디자인 전략 마련

- 관광지별 혹은 지역별로 특색있게 새분화된 공공디자인(간판) 전략 마련
-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우수 디자인 인증제” 등 시행 방안 검토
- 세계 선진 여러 도시 및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민간과 기업, 관공서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전략으로 도시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 유니온스퀘어 거리 등 미국의 전통 거리의 경우 건물 및 주변의 경치에 잘 어울리는 수공예적인 아름다운 간판이 거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 도시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시의 경우도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낙안읍성 등 각각의 관광지 특성에 맞는 또는 향동 문화의 거리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간판 디자인 전략을 고민해야 함.
- 또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해 인증해주는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나,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등을 통해 민간 및 기업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샌프란시스코의 심장이라 불리는 유니온스퀘어 거리. 수공예적인 아름다운 간판이 거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시민의 힐링공간이 되는 신청사 건립

- 잘 정돈된 잔디광장 및 조경수로 인해 관공서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도시공원의 이미지
- LA시청 27층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전망대는 관광객에게 큰 인기
- LA시청은 1926년에 착공해서 1928년에 32층, 454피트 높이의 건물로 지어졌음. LA시청 광장의 첫 느낌은 도심 내 위치한 넓고 쾌적한 공원이나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한 느낌이었음.
- 푸르게 잘 정돈된 잔디광장과 함께 광장 가장자리로는 야자수 등 유럽풍의 조경수가 늘어서 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청사 27층에는 LA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 외부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있음.
- 영화 더록의 촬영지이기도 한 마치 유럽의 궁전같이 생긴 돔 형의 샌프란시스코 시청은 링컨 동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조형물이 있으며, LA 시청처럼 광장에는 넓게 잘 정돈된 잔디밭과 시청 주변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휴식을 즐김.
- 국가정원 외에 도심 내에 마땅한 시민 휴식처가 부족한 우리시는 신청사 건립을 통해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만남의 장소가 되고, 다양한 문화행사 등이 열리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는 시청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LA 시청 광장



샌프란시스코 시청 조형물

4. 순천만정원수 페트병 개선

- 생태·정원도시인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게 현재의 페트병 개선 필요
- 장기적으로 미국의 종이팩 생수나 종이처럼 쉽게 찌그러지는 재질의 페트병으로 변경 검토
- 현재 우리시는 대룡정수장 지하1층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우리시의 수돗물 브랜드인 순천만정원수 300ml와 1.8l들이 병입수를 생산하고 있음.
- LA를 비롯한 미국에서는 흔히 유제품에 많이 이용되는 종이팩에 물을 담아 종이팩 생수를 유통하고 있음.
- 종이팩 용기는 플라스틱보다 저렴하고, 내용물이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우리시는 현재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생산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생태 정원도시인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게 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수(왼쪽). 정원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현재의 페트병에서 쉽게 찌그러지는 재질의 페트병이나, 종이재질의 팩으로 바꾸는 방안 검토 필요.

5. 지역민이 직접 참여 소득창출로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

- 애리조나 주 엔텔롭캐년의 모든 관리 및 관광 안내는 인디언 주민들이 직접 실시
- 우리시도 관광지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득창출로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사막의 모래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연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지하동굴에 기이한

자연의 예술동굴로 만들어 진 엔텔롭캐년은 애리조나 주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

- 인디언 자치구역 안에 있는 이곳의 모든 관리 및 관광객들 안내는 인디언 커뮤니티에 의해 이루어짐. 실제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도 입장객 관리부터 조별 입장객 투어도 인디언들이 실시함.
- 현재 우리시도 낙안읍성 등에서 지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있지만. 각 관광지별로 또는 생태 체험마을 등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것이 소득 창출로 직접 연계되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다양화가 필요함.



엔텔롭캐년의 관리 및 관광객 안내는 모두 인디언커뮤니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